

世界碩學이 본 中共의 科學技術

■ 科學技術者들을 「9種의 惡人」으로 몰아세워
■ 最高支配層의 反目으로 現代化計劃 崩壞가능

- … 中共은 최근 現代化計劃을 통해 西紀…○
- …2천년까지는 科學技術 분야에서 世界…○
- … 先進隊列에 나서겠다고 目標을 세…○
- …우고 있다. …○
- … 그러나 現實的으로 中共의 科…○
- … 學技術은 그러한 發展 目標…○
- …를 달성할 수 있는 터전이…○
-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 …않다고 알려 졌다. …○
- … 本誌는 이 번호에…○
- …「世界 碩學이 본…○
- …中共의 科學技…○
- …術」이란 特輯…○
- …欄을 마련…○
- …中國科學…○
- …文明史…○
- …의 著…○
- …者이며…○
- …中國科學…○
- …思想史研究…○
- …에 있어서 他…○
- …에 追從을 不許…○
- …하는 英國 케임브…○
- … 리지大學교수 “조…○
- …셀 니담” 博士가 “네…○
- …이 淸” 誌에 特別寄稿한…○
- …“中共의 科學技術과 醫學…○
- …의 現況” 과 中共問題專門家…○
- …이며 美스워드모어大學의 케니…○
- …스·리버달(Kennith Libertul)…○
- …政治學교수(前美國務省諮問위원)의…○
- …論文 “中共의 第2革命”을 本誌 玄源…○
- …福 편집위원의 번역으로 실기로 했다. …○
- …(編輯者註) …○

中共 科學技術과 醫學의 現況

조 섭 · 니 담

〈英國 케임브리지大學 教授〉

◇ 「四人幫」은 科學者와 技術者에 敵意

나는 지난 4월과 5월, 나의 首席助手인 魯桂珍박사와 함께 특별히 中共의 科學技術과 醫學의 現況을 연구하면서 中共에서 한달 남짓 머물렀다.

이번으로 다섯번째가 되는 中共訪問에서 우리의 關心은 지난 3월 北京에서 열린 中共의 國家科學政策會議에 집중되었으며 中共의 科學技術 및 醫學의 완전한 環境變化로 象徵되는 이 회의를 「네이취」誌 讀者들에게 알렸으면 했다.

그러나 이 會議은 이른바 「四人幫」으로 불리는 그룹 밑에서의 中共의 政治的 狀況을 어느정도 알지 못한다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英語의 정상적인 표현으로서는 그룹이라는 뜻이 될지 몰라도 「作黨」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표현일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客觀的인 略稱으로 그들을 편의상 G라는 말로 指稱하겠다.

이들을 毛澤東時代의 末期(1974~76)인 文化革命후기에 中共에서 큰 영향력을 行使하다가 76년 10월 마침내 권력에서 追放되었다.

이 그룹의 멤버중에서 西方에서 유일하게 잘 알려진 사람은 전에 上海의 女優였으며 한때 文化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던 毛澤東의 세번째 妻이던 江青이다. 江青은 이른가인 창춘차오와 모든 新聞과 라디오를 포함한 매스·미디어를 장악하는 宣傳家인 야오·웬·유안과 한때 上海의 紡織工場守衛였던 왕홍 웬과 한패가 되었다.

그런데 이들의 활동에 대해 西方에서는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 예컨대 「女性解放」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이들은 모든 분야에 걸쳐 「極左派」적인 태도와 요구와 실행을 선했다.

오늘날 中共에서 보는 보편적인 견해는 이들이 오로지 個人的 權力을 追求하기 위해 이런 짓을 했으며 이들의 추종자가 어떤 모순에 떨어지든간에 전혀 무시해 버렸다.

사실상 G는 근본적으로 反知性的이었고 특히 科學者와 技術者에 대해 敵意를 품고 있었다.

이들은 20世紀 初에 濶占을 근거로 鐵道와 電報개설에 반대하던 일을 회상시키리만큼 좁은 所見을 가진 시골뜨기 偏見을 키웠다.

◇ 華는 많은 技術을 가지면 反動이 되기 쉽다고 주장

華國鋒은 中共科學政策會議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들은 사람이 더 많은 知識과 技術을 가지게 되면 더욱 反動이 되기 쉬운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들이 내진 슬로건의 하나는 「전혀 文化를 갖지 않는 勞動者들을 갖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심지어 「知識이라는 것은 私有財產과 資本主義의 한 측면」이며 따라서 中共은 現代科學없이 傳統的인 技術만 가지고 세계와 더 잘 對處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이들의 統治下에서는 「9종의 惡人」 명단이 있었다.

그런데 그중 첫번째의 다섯 가지 惡人은 멀리

毛澤東의 全盛時代에 烙印을 찍혔었다.

첫째 地主, 둘째 富農, 셋째 反革命分子, 네째 강파와 파괴주의자와 범죄자, 다섯째 右翼政治人들이다. 文化革命으로 여섯째 民族反逆者, 일곱째 간첩, 여덟째 資本主義同情者 또는 理論家들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G₄는 여기에 덧붙여 知識人과 科學者들을 「惡臭을 풍기는 아홉번째의 부류」로 불렀다.

오늘날 中共에서는 G₄가 中共經濟를 파탄의 직전까지 몰고갔다고 서슴치 않고 말하고 있다. 요컨대 이 그룹은 「革命은 科學者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고 라보아제가 處刑되었을 때 말한 政治家의 發言은 알리도 없었겠거니와 알았어도 틀림없이 동의했을 것이다.

中共의 反科學물결이 西方세계의 反文明 속의 反科學主義와 무슨 관련을 가질 수 있는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環境汚染의 위험이라든가 核武器에 반대한다든가 하는 西方세계의 강력한 感情과 비슷한 것이 中共에도 있었던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다.

中共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거의 듣지 못했고 西方세계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中共社會의 現代化로 외치고 20世紀末까지 先進工業隊列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자는데 呼應하자면 커다란 知的인 努力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自명한 일이므로 G₄는 「動員」에 직면한 大衆의 勇매를 조성시킬 수 있다고 예견했다. 이것은 「모래속에 머리를 감추는」 따위의 일종의 孤立主義였다.

◇ 科學技術者를 間諜罪로 날조 投獄

G₄의 활동은 遼寧省과 같은 북부지방과 四川省·甘肅省·貴州省과 같은 서부지방에서 특히 나쁜 영향을 주었고 고도로 公업화가 된 上海에서 나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참으로 逆說的인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江靑과 왕홍웬의 개인적인 근거지였기 때문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그중에서도 最惡의 사태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吉林省 長春에 있는 國立光學精密機械研究所에서 일어났다. 그곳에서 산파이창이라는 사람은 2백여명의 科學技術者들을 投獄하는데 성공했다. 이 중에는 監獄에서 고문을 당한 사람도 있고 自殺의 길로 몰린 사람도 있다.

G₄의 沒落 후 신중하게 조사한 결과 간첩죄 등으로 이들에게 뒤집어 씌운 죄과는 모두 날조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한 사람도 남김없이 復權되었고 산파이창은 法務部에 넘겨졌다.

이런 사실로만 미루어 보아도 中共北部에 있어서 科學이 얼마나 退步했을까 쉽게 상상할 수 있다.

G₄가 科學研究機關의 일을 망친 범위는 雜多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예컨대 海南島에 있는 國立熱帶作物研究所는 아주 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廣東에 있는 華南農業研究所와 大學은 전기간을 통해 農業史와 같이 非實用的인 科目에 이르기까지 研究와 教授를 훌륭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G₄의 파괴행위가 科學과 工業에 미친 最惡의 영향은 두 개의 연결된 방법으로 발생했다.

그 하나는 직접 實用的인 결과를 주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극단적인 反外國的인 偏見이었다.

自力更生이라는 유명한 슬로건은 18년전 蘇聯이 별안간 中共으로부터 그들의 技術者들을 撤收시켰을 때 만들어 낸 말이지만 이것은 쉽게 외곡수의 排他主義로 꼬일 수가 있었다.

예컨대 上海의 造船은 몇해 동안이나 작업이 뒤물렸는데 그 이유는 배 하나를 完成하는데 필요한 裝具 중 10퍼센트 이하를 외국에서 들여와야 했지만 輸入이 禁止되어 生産을 질질 끌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이 슬로건의 왜곡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모든 연구소가 타격을 받았다. 실험장치를 한 가지라도 수입하려면 그때마다 匯방을 받았던 것이다.

◇ G₄ 몰락후에야 西方醫學 훈련

마찬가지로 G₄는 外國語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반대했다.

그래서 醫學界에서는 최근의 西方醫學을 훈련 받는 外國醫師코스는 G₄의 몰락 이후에야 시작할 수 있었다.

또 經濟的自立을 강조한 나머지 海南島에서는 한심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G₄는 고무生産을 강화하는 대신 거의 모든 커피農場을 뿌리채 뽑아 버리게 했으며 그나마 그릇된 방법으로 지도를 했다.

고무나무는 이틀에 한번씩 나무에 구멍을 뚫어 즙을 받아 내야 하는데 이들은 하루에 두번씩 즙을 받아 내라고 성화였고 비가 올 때 이 작업을 하면 나무가 썩는다고 알려졌으나 비가 와도 막무가내로 즙을 받게 했다.

모든 전문가들은 쫓겨났으나 이제 이 섬은 회복하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上海 근처에서는 모든 地方人民公社가 經濟的으로 自立해야 한다는 그릇된 이론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穀物생산에 專念하게 되어 수년간 겨울에는 上海市에서 野菜를 손에 넣을 수가 없었다.

◇ 科學者들을 아주 減視

G₄ 統治下에서는 高等研究機關에 대한 資金을 자르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으므로 上海의 國立生化學研究所의 장대한 새 건물은 完工이 적어도 2년이나 늦어졌다.

이런 일과 결부되어 科學과 科學者들은 일반적으로 멸시를 받게 되었다.

우리가 입수한 자료중에서 가장 놀랄만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한다.

이야기는 唐山에서 많은 人命과 財産을 앗아간 끔찍스런 地震에 관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 준 사람중의 일부는 地震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 遼寧地震計測所에 있었으며 직접 地動의 증거를 목격했다.

이런 사실은 매시간마다 北京에 報告되었으나 高位層은 어떤 措置라도 취하는 것을 막았다.

地震이 일어났을 때 華國錄은 곧 헬리콥터로 現場에 날아와 民衆간에 큰 신망을 얻었으나 四

人幫은 反知的인 信奉에 비하면 수백만의 죽음이란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一笑에 불었다고 알려졌다.

더우기 우리는 7개 地震計測所로부터 보낸 報告가 무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이유는 閣僚層의 분위기 때문만이 아니라 中共科學院내에서 갑작스레 昇進한 四人幫의 心復들이 地震警告를 돌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唐山地震은 어느정도 豫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中共地震學을 위해서는 하나의 경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 豫測은 政治的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떤 措施도 취할 수 없었던 것이다.

◇ 下放을 科學者 處罰에 利用

G₄의 政策에는 학교와 大學에서 肉體勞動을 하고 政治討論에 보내는 시간을 誇張한 것이 있다. 이 중에는 「現場大學」과 「野外研究」와 같은 전혀 實行에 옮기기 어려운 것이 있다.

學生들과 知識層과 行政家들을 상당한 기간 農場이나 工場에서 肉體勞動을 시키기 위해 보내는 이른바 「下放」은 中共社會에서는 오랫동안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어 있었다.

물론 大學에 들어가기 전에 1~2년간 產業界나 農事일로 국가에 봉사한다는 생각에 반대할 이유가 없고 주기적으로 事務직원과 知識層이 여러가지 實際的인 活動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나쁘게 볼 필요도 없다. 이것은 根本的으로는 좋은 着想이다.

그러나 G₄는 「下放」을 知識層과 科學者들을 진정으로 處罰하는데 이용했다.

著名한 病理學教授한 사람은 發癌學 강의를 해야 했는데 醫大生들은 木花마는 일에 쫓겨나 강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生理學研究所의 所長은 農民의 腰痛을 치료하려 파견되었고 이름난 生化學研究所의 副所長은 아무 연구시설도 없는 人民公社내의 植物바이러스문제를 해결하려 파견되었다.

최근까지 學生으로 있던 많은 사람들이 大學

가로 5년간 더 延長했다.

中共은 최근 西歐에서 약 10億弗 상당의 鑛山 장비를 구입했고 英國으로부터 20億弗상당의 鐵鋼工場을 도입할 교섭을 벌이고 있다.

美國과의 通商展望도 증대되고 있다.

美·캐나다 通商委員會의 최신 추계에 의하면 美·中共의 交易量은 77년의 3억 7천 4백만弗에서 78년에는 10억弗에 이를 것이다.

78년 交易量의 약 반은 주로 小麥을 포함한 美國의 農産物판매고이다.

美國의 對中共 農産物판매고의 일부는 濠州와 캐나다 등 中共에 대한 農産物의 다른 供給源들로 말미암아 줄어들지 모르나 현재 진행중인 협상으로 미루어보아 79년의 美·中共交易量은 여전히 10억弗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이 숫자는 倍加 될지도 모른다.

70년대 중반기이래 中共에서 토의되어 왔던 일부의 去來는 최근에 와서 承認을 받았다.

北京당국은 현재 外國商社가 技術, 機械類, 經營技術을 제공하고 일정기간 이 기업에서 나오는 生産品으로 辯濟하며 이 기간에 지난뒤 기업을 中共에게 주는 조처를 취할 차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海外에서 공급되는 原資材의 加工과 관련된 거래는 현재 진행중이며 外國商社를 위한 部品組立에 관련된 거래도 진행중이다.

香港에서 中共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中國資源公社는 香港과 마카오에 근거지를 두는 共同所有企業을 設立하기 위해 外國商社와 의논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고 中共言論의 최근 論調는 中共 내의 共有去來의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비치고 있다.

中共은 특히 鑛業, 沿岸油田開發, 鑛物處理, 通信분야에서 外國資本이 參與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農業과 관련된 去來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펜조일, 엑슨, 유니온·오일, 필립스 石油 등은 海底油田開發에 관해 中共과 진지한 회담을 가졌고 모빌社도 11월에 中共과 교섭을 벌일 계획이다. 雙方이 모두 진지한 관심을 보인 이런 사업을 各社마다 수십억弗의 액수가 관련된 거래를 가져올 수 있다. 中共의 辯濟方

식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으나 최근 中共 指導層은 生産品으로 辯濟하든가 借款을 들여오든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보증했다.

◇ 經濟的 技術 달성 위해 混合政策에 의존

中共은 또 毛澤東의 죽음에 앞서 10년간 大學의 소란으로 말미암아 고갈되었던 知性資源을 보충하기 위해 海外로 눈을 돌리고 있다. 中共은 외국인 학자, 그중에서도 특히 가르치고 강의하는 외국인 과학자에게 門戶를 開放하고 있다. 日本의 三菱에서 파견된 것과 같은 외국인 經營顧問도 고용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北京당국이 수천명의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日本, 西歐, 美國 등의 大學에서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해외로 보내기로 결정한 점이다. 美國만도 79~80학년도에 약 5백명의 中共學生의 대학입학을 허가할 것이다. 中共의 대미 유학생의 수는 몇해 안으로 수천명으로 늘어날 것 같다.

또 中共은 최근 民間用通信衛星을 올리는 事業에 관해 美國과 협의중이다.

외부사람들에게는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으나 現代化계획의 對內的인 部門은 훨씬 더 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78년 3월 채택한 長期經濟計劃은 農産物의 生産高를 78~85년 기간중 연간 4~5퍼센트 増産하기로 되어 있다. 鋼鐵生産은 같은 기간 중 2배 이상 늘어나 연간 6천만톤을 生産할 계획이다. 中共은 120개의 大規模프로젝트를 건설하고 14개의 適切하게 위치한 産業基地를 발전시킬 계획이며 이것은 모두 1985년까지 끝낼 것이다.

中共指導層은 이와같은 經濟的인 技術을 달성하기 위해 혼합정책에 기대고 있다. 이들은 行政改善을 통해 대대적인 절약을 실현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예컨대 計劃기구의 개선, 公金流用과 浪費를 줄이는 일, 原價計算과 재무절차의 긴축, 그리고 政府官吏, 工場經營層, 一般勞動者들에게 規律과 勤勉을 강조하는 것 따위다. 또 이들은 電力, 燃料, 原資材 및 中間資材, 運輸와 通信 등과 같은 우선분야에 되도록 많은 投資를 유도할

것이다.

물질적인 유인이 공장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올려주고 있다. 中共노동자의 약 반수는 1년전 봉급을 인상받았다. 北京政權은 여러가지 형태의 보너스, 샅일의 보수제도 등을 되살려서 수입이 직접 生産과 직결시키고 있다.

農民들은 生産物의 去來條件을 향상시킨다는 약속을 받는 것과 동시에 中共에서 이른바 「基本資本建設」이라고 불리는 사업에 더 많은 공헌을 하라는 권고를 받는다.

이 사업은 不毛地개간, 관개사업, 들판 고르게 하기 등 農閑期의 사업이다. 農業에 대한 국가의 投資가 늘어남에 따라 機械化는 촉진되고 대규모의 관개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 工場勞動者들에 物質的 誘引

中共이 당면한 문제는 심각하다. 低價와 物質的인 유인이 거의 없었던 종전의 정책결과도 일부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中共의 勞動生産性은 쪼그라들었다.

石炭, 輸送, 電力을 포함한 일부 중요한 분야는 지난날 등한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農産物生産高를 늘리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投資가 필요하다.

敎育분야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北京당국은 66~76년간 통용되어 온 敎育「改革」의 거의 대부분을 재빨리 뜯어 고치고 있다. 새로운 政權은 高等敎育기관인 入學試驗제도를 다시 만들고 엘리트學校를 다시 設立하여 가장 우수한 學生에게만 입학할 허용하고 스텔과 장비배정에 우선권을 받게 된다. 또 進級의 기준도 강화하고 政治보다는 技術課目에 더 관심을 기울리게 敎科課目을 개정하고 敎育을 부활하는 한편 교사에게 봉급을 올려주고 더 큰 권한을 주면서 이들이 西紀 2천년까지 中共을 現代化하는 노력에 있어서 전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부수입제도 마련했다.

先進훈련을 받기위해 海外유학을 나가는 사람 중에는 이 개정된 敎育제도에서 나온 많은 우수 학생들이 포함될 것이다.

◇ 現代化計劃은 3개 중요 集團에 被害

그러나 中共의 現代化계획은 民衆의 不滿과 指導層의 反目이라는 2가지 종류의 위협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

이 두 위협은 얽혀있다. 예컨대 中共 社會에서 緊張이 커지고 價値觀에 큰 차이가 벌어지면 指導者들을 갈라놓아 頂上層과 下部의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合勢하여 現代化계획에 있어서 인기가 없는 계층을 攻擊할지 모른다.

外部世界는 中共政權의 現代化努力이 中共 내에서 거의 보편적인 人氣를 누리고 있다는 印象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人氣는 어느정도 하나의 幻想이라고 할 수 있다. 中共의 知識層은 現代化派의 勝利로부터 큰 惠澤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中共의 많은 民衆들은 毛澤東의 死去 후 일어난 事態의 變遷에 만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少數派들은 사태를 아주 다른 눈으로 보고 있다.

現政策으로 어떤 사람들의 利益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일까?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3개의 중요한 집단들이다.

그중에는 66~76년간 中共黨에 入黨한 1천7백만명의 靑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入黨할 때 그들의 손으로 공격하고 제거했던 바로 그 幹部들을 權力의 座로 돌아오게 한 肅清의 銳峯을 맡고 있다.

또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層은 中學校를 마친 뒤 黨의 命令으로 아직도 시골에 定着하고 있는 1천만명 이상의 都市靑年들이다.

이들은 學問的인 재주가 모자라고 더우기 엄격한 새로운 大學入學규정으로 말미암아 大學入學競爭에서 절대적으로 不利한 입장에 있다.

中共의 各급학교와 大學의 젊은 敎수들은 새로운 政策으로 당황하고 있다. 이들은 技術的인 컬리큘럼보다는 毛澤東思想을 터득할 것을 강요당해 왔기 때문에 앞날이 염려되고 있다.

◇ 海外 파견 훈련생은 時限爆彈

장기적으로 내다 볼 때 새로운 優先政策으로

不利한 立場에 서게 될 層은 상당히 넓게 번져 갈 것이다.

「가장 우수한 학생들」만을 高等教育을 시킨다는 政策은 知識層의 子弟가 아닌 젊은이들에게는 上層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을 막아버릴 것이다.

物質的인 誘引을 다시 採用함으로써 都市와 農村間의 所得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고 1930年代 末에 蘇聯에서 하던 政策처럼 中共에도 勞動貴族社會가 생길지 모른다.

더우기 中共은 수천명의 가장 우수한 學生들을 海外로 내보내 수년간 교육훈련을 받게 함으로써 앞으로 中共의 制度를 뒤흔들 수 있는 時限爆彈을 장진해 놓고 있다.

3년내지 5년내로 中共으로 쏘아져 돌아와 높은 優先權을 가진 분야에서 責任있는 자리를 차지할 이 學生世代는 그들의 바로 앞 世代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갖게 된 것이다.

이들은 外國人을 排斥하고 孤立을 즐기며 反知性的이었던 時代에 성숙한 前世代와는 價値觀을 달리할 것이며 이 두 世代간의 價値觀의 갈등은 심각해져서 爆發할지도 모른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中共을 괴롭힐 것이다.

이런 壓力은 더욱 惡化되어 現代化계획은 예기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질 것이다. 현재 中共의 頂上層은 이들이 당면한 難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中共指導層은 海底油田事業이 얼마나 복잡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놀랐으며 生産까지 들어가자면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만스레 생각하고 있다는 報도가 있다.

지난 12년간의 肅清과 反肅清은 致命的인 遺産을 남겼다.

中共의 言論이 밝히듯이 官僚전반을 통해 幹部들은 黨의 說得에도 불구하고 恒久的인 政策路線은 하나도 없으며 말성 많은 政策을 수행하는데 이니시어티브를 잡은 사람은 다음 변화가 일어나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따라서 中央指導層은 모든 층의 관리들에게 現代化계획을 밀고나가도록 격려하자면 일종의

信賴를 얻어야 한다.

◇ 工業化政策변경과 投資縮少壓力 받을듯

앞으로 발생할 政治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目標達成에 실패가 現代化계획으로 생긴 社會的 壓力과 합쳐 발생할 가능성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 예컨대 中共은 80년대 초에 農業이 기대했던 비율로 增產을 하지 못했다는가 또는 都市所得이 높아져서 食糧에 대한 새로운 需要를 발생하게 만들었다는가 해서 연간 1천만톤의 穀物을 수입해야 한다고 가정해 본다. 指導層은 애지중지하던 工業化의 目標을 크게 後退시키든가 現代化계획에 필요한 資金을 辯濟하기 위해 地方의 착취 水準을 크게 늘려야 하든가 決定해야 한다.

아무튼 北京당국은 勞動者와 農民들의 기본적인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急速한 現代化계획을 밀고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 같다.

이 중요한 기간의 接近策은 工業化의 과정을 바꾸든가 投資를 줄이라는 엄청난 壓力을 받게 될 것이다. 80년대 초에는 現代化계획이 平等과 自主라는 中共革命의 核心的인 두 가지 課題와 직접 逆行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毛澤東은 對內的으로 知識層을 肉體勞動者들로부터 격리하고 都市生活을 農村生活로부터 그리고 工業作業을 農事일로부터 격리시킨 간격, 그가 말한 이른바 中共社會의 「3大差異」를 줄이는데 있어서 中共革命의 平等主義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었다.

對外문제에 있어서 中共革命은 1世紀에 걸친 外國의 굴욕을 극복하고 中共의 軍事의 安保뿐만 아니라 文化的인 威信과 經濟的인 獨立까지 回復할 것을 모색했었다.

◇ 80年代初 現代化노력 수정 불가피

이런 背景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層은 80년대의 말聲의 原泉으로 들어날 것이다.

엘리트層은 政策수립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특별한 우대를 누릴 것이며 現代化計劃을 밀고 나갈 것이다.

이것은 또 都市와 農村간의 生活水準에 차이를 넓혀주게 된다. 이들은 外國에 대한 中共의 技術的, 財政的인 依存度를 더욱 크게 할 여러 가지 계획을 주장할 것이다.

더우기 이런 계획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海外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자기들 固有의 文化에서는 異邦人과 같이 보일 것이다.

이리하여 80년대 초에는 現代化노력을 수정하라는 심각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 聯立政權이 현재와 같은 의견의 일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現代化계획을 밀고나가는 데 필요한 어려운 決定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인 평가를 하자면 中共政治局員간에 이견을 分析할 필요가 있다.

◇ 科學技術의 現代化에도 鄧·華 異見

鄧小平과 華國鋒은 둘다 中共의 急速한 現代化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鄧은 中共革命의 核心的인 價値를 華보다 더 많이 희생시켜서라도 이 目標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鄧은 거의가 政治局의 古參局員들의 支持를 받고 있는 반면 華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거의가 젊은 政治局員들이다.

이 두 사람의 見解差異는 78년 3월 北京에서 열린 全國科學會議 연설에서 분명히 들어났다.

鄧과 華는 모두 中共의 科學技術을 「4個 現代化」의 關鍵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의 合意는 거기에서 그치고 말았다.

鄧은 中共의 將來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科學革命을 이룩하기 위해서 最上級의 專門科學要員을 養成할 계획을 설명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政治的인 必要性을 밝혔다. 그는 科學者들이 專門技術을 닦음으로써 革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科學技術者들에게 많은 政治와 理論書籍을 공부하고 많은 社會活動에 參與하고 그들의 功業과 功勳이 없는 많은 集會에 參席하라고 要求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華는 이와 대조적으로 『政治와 思想的

功業을 強化하고 政治는 指揮者이며 모든 것의 녀이다』라고 말했다.

鄧은 西紀 1천년까지 中共을 世界先進隊列에 올려놓는 代價로 엘리트科學要員은 특별훈련을 받고 物質的인 혜택과 높은 威信을 享有하며 國際社會와 광범위하게 交流할 機會를 갖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華는 大衆의 투쟁과 自主를 통해 科學을 발전시키는데 더 큰 비중을 둔다는 견해를 밝혔다.

鄧과 華의 見解差異는 거의 1世紀를 끌어오는 論爭의 계속이다.

한쪽에서는 全面的인 西歐化만이 中國을 外債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西方과는 특이한 政治文化制度를 유지하면서 國力強化를 위해 西方技術을 成功的으로 適用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었다.

鄧은 華와의 의견차이를 고려하여 그와 의견을 같이하는 指導層은 70~80歲에 이르게 되어 革命은 곧 華의 世代로 移行한다는 문제와 대처하기 위해 政治的인 戰略을 짜내려고 시도했다.* 이 戰略의 제 1 선봉은 78년초 EEC와 日本과의 長期通商協定과 더불어 10개년 經濟計劃과 8개년 科學技術計劃의 採擇으로 분명해졌다.

이것으로 中共의 現指導層이 現代化를 正式으로 公約하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을 이 目標을 지켜나가도록 만들었다.

鄧은 中共이 80년대 후반기까지 現代化計劃을 충실히 밀고나간다면 이計劃은 뒤집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두번째의 鏡鑒은 毛澤東文化革命의 尤령을 내쫓는 일이다.

鄧은 78년초 黨이 毛澤東의 비판을 하도록 시도했으나 華를 비롯한 現聯政의 주요 멤버들의 同意를 얻지 못하자 새로운 戰略을 꾸며냈다.

첫째로는 文化革命과 그 뒤 몇 해 동안의 急進政策을 모조리 부정해 버리는 것이며 두번째로는 毛澤東思想을 완전히 去勢해 버리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中共指導層은 現代化計劃에 대해 비교적 단결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毛澤東의 尤령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한편 장기적으로 볼 때 문제는 現代化를 위한 聯合이 80년대 초에 당면할 딜레마와 對處했을 때 단결을 유지할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